

마르셀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rcel Breuer's furniture designs

유연숙* / Yoo, Yeon-Sook

Abstract

Marcel Breuer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urniture designers of the 20th century. He studied at the Bauhaus in Weimar from 1920 to 1924 and in 1925 became master of the furniture studio at the Bauhaus in Dessau. Virtually from the outset, he was one of the most prolific and inventive designers at the Bauhaus and fulfilled its claim to create designs for serial production. Gropius, the Bauhaus founder, had a profound influence on his furniture designs.

In 1925, Breuer created the tubular-steel armchair, which revolutionized design and technique in the field, marking the advent of a new era. The furniture that was developed, by him and by others, from this design - technically cool, but light, elegant and clear - became the very symbol of modernism. Despite the success of his tubular-steel furniture, Breuer went on to explore the use of other materials, such as aluminium and plywood. He made use of these new materials, which were associated with new technologies, to create new forms, as it were, some of which proved to be forerunners of later developments in furniture design.

Breuer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he evolution of modern design through his furniture designs, which received worldwide recognition and acclaim. His work unified functionality and beauty in a way that was to become a valid expression of its time and simultaneously far ahead of it.

키워드 : 가구디자인, 강관의자, 모더니즘, 바우하우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헝가리에서 출생한 유대인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 1902-1981)는 바우하우스의 가구공방과 하바드대학의 디자인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건축가, 실내건축가, 가구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였다. 그는 특히 가구디자인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구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한 저명한 출판사인 프레스텔(Prestel)이 2000년에 출판한 "20세기의 디자인"이라는 책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약 80 개의 우수한 디자인제품이 소개되었는데(예를 들어 소니 워크맨, 코카콜라 병, 지포 라이터, 모토롤라 휴대폰 등), 그 중에 브로이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실리의자가 포함된 것은¹⁾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90년대

이래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20세기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이것은 20세기의 마감이라는 시대적인 영향이 작용한 탓이라고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구디자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밝히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연구는 그가 디자인한 가구들을 분석하는 것 이상을 필요로 한다. 즉 가구디자인 교육 과정, 전반적인 가구디자인 활동, 대표적인 가구가 디자인된 배경 등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브로이어가 가구디자인에 사용한 주재료는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 정회원, 이화여대·상명대·국민대 강사

1) Albus, Volker / Kras, Reyer / Woodham, Jonathan M. (Herausgeber), Design! Das 20. Jahrhundert, pp.38-39.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브로이어의 교육과정과 가구디자인 활동을 단계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각 단계적(시대적)으로 대표적인 가구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2. 브로이어의 교육과정 및 가구디자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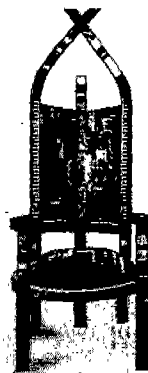
2.1. 바우하우스에서의 학생 시절 (1920-1924)

(1) 목공공방의 학생

브로이어는 1902년 헝가리에서 한 의사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예술가가 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조형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려 했지만, 비엔나市와 아카데미의 보수성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 헝가리인 건축가의 조언에 따라, 그는 1920년에 1년 전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독일의 바이마르(Weimar)에 설립된 바우하우스(Bauhaus)로 갔다. 여기에서 우선 6개월 간의 예비교육을 받고, 1921년 여름학기부터 3년 간 그로피우스가 직접 이끈 목공공방(Tischlerei-Werkstätte)에서 가구디자인을 교육받았다.

(2) 학생 시절의 가구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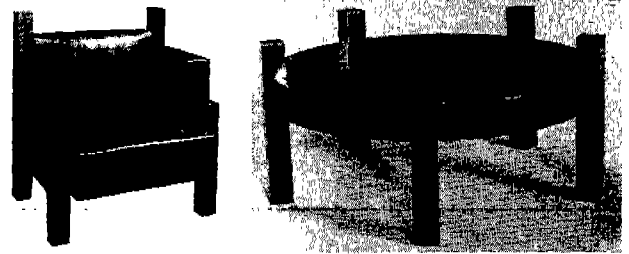
학생 시절부터 바우하우스의 가장 독창적인 두뇌에 속했던 브로이어는 “예술과 수공예(Kunst und Handwerk)”라는 바우하우스의 첫 슬로건하에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바우하우스 자체와 마찬가지로, 그도 영국의 예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과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Expressionism)의 영향하에 예술적인 표현과 수공예적인 조형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였다²⁾.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 브로이어의 최초의 가구인 아프리카의자(African Chair)를 들 수 있다.



<사진 1> 아프리카의자. 1921

1921년 브로이어는 그로피우스와 아돌프 마이어(Adolf Meyer)가 공동으로 설계한 베를린의 산업가 쾰머펠트(Sommerfeld)의 주택을 위해 차탁자와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이 가구들에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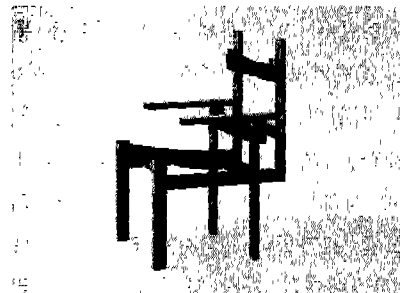
는 바우하우스의 조형적 기초인 정방형, 입방체 그리고 원의 형태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언어를 사용했지만, 그에 의해 실현된 가구와 공간의 관계는 여전히 전통적인것에 머물러 있었다. 즉 가구가 실내공간을 강조해 주지



<사진 2, 3> 쾰머펠트의 주택을 위한 의자 및 차탁자. 1921

못하고 오히려 억압하였다. 브로이어는 이러한 문제점을 후의 가구 디자인에서 인식하고 해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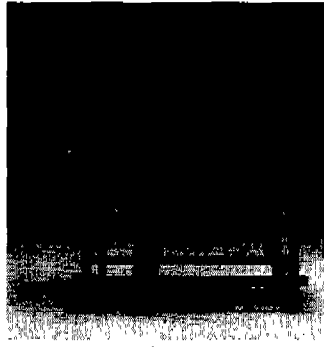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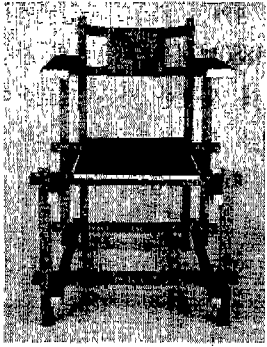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경제가 천천히 회복됨에 발맞추어, 그로피우스는 1922년 바우하우스의 종래의 슬로건인 “예술과 수공예”를 “예술과 기술(Kunst und Technik)”로 대체하여 수공예의 비중을 낮추고, 기계와 산업을 중시하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기계산업의 발달에 의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당시의 사회적 배경, 바우하우스를 국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시키고 싶어하는 그로피우스의 의지, 네덜란드의 데 스틸(De Stijl) 등이 작용했다³⁾.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목공공방의 주된 기능은 이제 기계적 대량생산을 위한 가구의 유형(Typus)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고, 바우하우스는 의자디자인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어야 하며, 편리하고, 신체에 건강해야 한다. 또한 유형으로서의 의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구하에 브로이어는 1922년에 그의 학생 시절의 대표적 작품인 橫木의자(Lattenstuhl, Slat Chair)를 디자인했다. 이 의자는 데 스틸 그룹에 속했던 리트벨트(Rietveld)의 의자디자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4년까지 몇 차례 형태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바우하우스에서 직접 제작, 판매되었다.



<사진 4> 橫木의자. 1924년 모델

2) Bergmann, Eckart/Kleinfenn, Andreas (Herausgeber), Marcel Breuers Freischwinger B32/64, p.3.

3)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Herausgeber), Bauhaus, pp. 54-61.



<사진 5> 리트벨트의 안락의자. 1919 <사진 6> 리트벨트의 赤靑의자. 1923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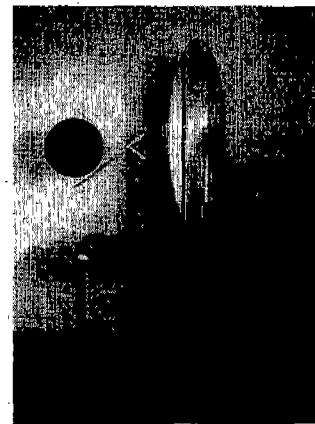
당시에 바우하우스의 외부에서 “브로이어의 황목의자는 예술작품이며, 앉기에 불편하다”는 비판을 종종 가했다. 이에 대하여 바우하우스측은 기능성을 강조하며, “황목의자는 전적으로 의자의 기능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 따라서 달리 만들어 질 수 없다”고 맞섰다. 브로이어는 황목의자의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보다 상세하게 옹호하였다: “황목의자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가장 단순한 구성을 통하여 편안하게 앉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 가) 앉는 부분과 등받이의 탄력성. 여기에 사용할 천은 무겁거나 비싸거나 먼지가 잘 앉아서 안 된다.
- 나) 앉는 부분의 비스듬한 경사. 이를 통하여 허벅지 전체가 압박되지 않고 지탱될 수 있다.
- 다) 상체의 비스듬한 자세.
- 라) 척추에 가해지는 모든 압박은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척추의 뒷면은 등받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 마) 정역학(靜力學)의 원칙 이용. 즉 앉을 때 힘을 받는 방향과 사용된 직물이 밀리는 반대 방향에 나무의 넓은 면을 사용해야 한다.”⁵⁾

이러한 브로이어의 설명에서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황목의자가 기능적인 관점을 철저히 고려해서 디자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황목의자가 동시에 하나의 예술작품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⁶⁾. 따라서 바우하우스가 의자디자인에 요구했던 것을 황목의자가 100% 충족시키지 못

했다고 말할 수 있고, 황목의자에 가해졌던 당시의 외부의 비판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문제는 황목의자가 아니었고, 바우하우스가 의자디자인에 요구했던 것들 중에서 “의자가 예술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의자의 기능성과 대량 생산의 측면을 일반적으로 고려한 요구로서 바우하우스의 슬로건인 “예술과 기술”에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황목의자의 골격구조 덕분에 공간이 의자에 의해 억압되지 않고, 투명하며, 쉽게 경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구와 공간의 관계는 좀더렐트의 주택을 위해 가구디자인을 했을 때와는 달리,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923년 바이마르에서 바우하우스의 첫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를 위하여 바우하우스의 학생들은 한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였고, 브로이어는 거실과 여성침실의 가구를 디자인했다. 이때에 그가 디자인한 가구는 침대, 화장대, 의자, 책상, 유리 장식장이었는데, 이 가구들은 러시아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화장대는 동시에 브로이어의 바우하우스 졸업작품이었다. 이 화장대는:이국적인 레몬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기능적인 우아함과 졸업작품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수공적 능력을 보여 준다.



<사진 7> 브로이어의 졸업작품인 화장대. 1923

브로이어는 바우하우스의 이론가에 속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과제를 실무적인 해결에서 찾았다. 그는 “작업의 매 과정 전에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작업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 적이 있다⁷⁾. 1924년에 발표한 ‘형태와 기능’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이러한 관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의자는 수직-수평이어서는 안 된다. 표현주의적이거나 구성주의적이어서도 안 된다. 단지 합목적성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져도 안 된다. 또한 (보통의) 탁자에 어울려서도 안 된다. 의자는 좋은 의자이어야

7)Emmerich, Angelika, Marcel Breuer-Tischlerlehrling und Geselle des Weimarer Bauhauses 1920-1925, Wissenschaftliche Zeitschrift der Hochschule für Architektur und Bauwesen Weimar, 1989, p.81.

4)리트벨트의 적청의자는 원래 1917/18년에 제작되었고, - 흑색이었다. 이 의자에 리트벨트가 적청의 색을 칠한 것은 1923년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체시나(Cassina)사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http://www.cassina.it/riethm> 참고.

5)Breuer, Marcel, Die Möbelabteilung des staatlichen Bauhauses zu Weimar, in: Fachblatt für Holzarbeit, 1925, p.18.

6)플라이더러(Pfleiderer)가 이미 비판한 바 있듯이, 황목의자가 기술상의 이유에서 반드시 그 형태로 디자인되었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디자이너가 생각한 의자의 스타일이 즉물성과 단순성을 요구한 결과 그 형태로 디자인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황목의자는 하나의 예술적 창작품인 것이다; Pfeleiderer, Wolfgang, Einleitung, in: Die Form ohne Ornament, Werkbund Ausstellung 1924, p.17.

한다. 그러면 좋은 탁자에 어울리게 된다.”⁸⁾ 이러한 견해를 갖고 브로이어는 특정한 디자인 양식과 거리를 두었으며, 이론과 학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새롭고 우수한 가구디자인을 가능하게 해 준 조형적 자유를 얻었다.

2.2. 바우하우스에서의 匠人 시절(1925-1928)

(1) 가구공방의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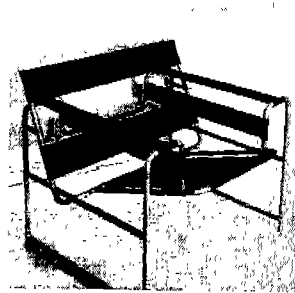
목공공방에서의 교육을 마친 후, 브로이어는 1924년 가을에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의 파리로 갔다. 몇 개월 후, 그로 피우스의 요청을 받고 1925년부터 독일의 뎃사우(Dessau)로 이전한 바우하우스의 가구공방(Möbelwerkstätte)⁹⁾에서 장인(Meister)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브로이어는 1925년에 가구디자인에 한 획을 긋는 바실리의자라는 첫 鋼管(Stahlrohr, tubular-steel)가구를 디자인했으며, 1927/28년에는 B33이라는 이름을 가진 뒷다리가 없는 캔틸레버의자(Cantilever Chair)를 디자인하였다. 1926/27년에 브로이어는 바우하우스측과의 아무런 상의 없이 렌기엘(Lengyel)이라는 헝가리인 건축가와 공동으로 베를린에 표준가구(Standard-Möbel)라는 가구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주로 강관가구들을 생산했는데, 초기의 사업상의 어려움을 인식한 브로이어는 1928년 7월에 동업자인 렌기엘에게 자신의 지분을 팔고 회사에서 손을 떼었다. 1928년 4월 바우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브로이어는 가구공방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가구회사를 위하여 주로 강관가구들을 디자인하였다.

(2) 바실리의자(Wassily C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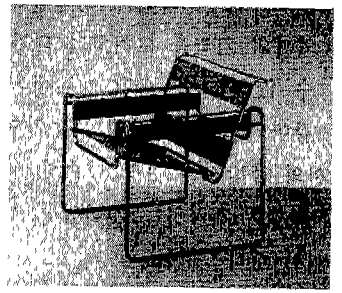
브로이어는 1925년에 디자인한 첫 강관의자에 B3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1960년대 초에 이탈리아의 가구생산업자인 제비나(Gavina)에 의해 이 의자가 재생산되기 시작하면서¹⁰⁾ 제비나와 브로이어의 합의하에 바실리의자라는 오늘날 통용되는 이름이 생겨났다¹¹⁾. 그 배경은 이 의자가 브로이어의 바우하우스 동료였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요청에 의해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이다¹²⁾. 바실리의자는 강관을 주재료

로 하여 디자인된 최초의 가구라는 점에서 가구디자인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강관이 이미 1880년대부터 유럽의 시중에 등장하였지만, 이것을 가구디자인에 사용한 것은 브로이어가 처음이다. 그는 새로 산 자전거의¹³⁾ 핸들에서 영감을 얻었으며¹⁴⁾, 강관이 가볍고, 저렴하며, 분해하기 쉽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가구의 재료로 선택했다고 말했다¹⁵⁾.

브로이어는 바실리의자의 첫 모델(1925)에서 니켈도금한 강관을 사용했으며, 각 강관들을 서로 용접하여 연결하였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는 2개의 강관을 통해 서로 연결되었다. 1927년까지 이 모델은 중요한 변화를 하게 된다. 크롬도금한 강관도 사용되고, 각 강관들이 나사못을(처음에는 등근 나사못, 나중에는 육각형의 나사못) 통해 연결되었다.



<사진 8> 바실리의자. 1925



<사진 9> 바실리의자. 1927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다리의 구조였다. 앞다리와 뒷다리를 바닥에 닿는 강관을 통해 연결하여 의자의 전체 골격이 하나의 선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4개의 다리 끝 부분은 썰매의 앞부분처럼 굴곡되었다. 1926년에 브로이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강조하며 바실리의자에 대한 실용 신안 보호를 신청하여 결국 이를 획득했다: “처음으로 공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강관을 주재료로 사용, 조립 및 운송의 용이성, 경량성, 내구성, 팔걸이와 그 아래의 측면에 처음으로 천받침을 사용”¹⁶⁾

형태적인 유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횡목의자(사진 4)에 고려된 기능적 분석이 바실리의자에도 대체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바실리의자에서는 횡목의자의 단점이 하나 보완되었다. 즉 횡목의자에서는 앉는 면의 천이 앞에 있는 횡목의 전면에 고정되었지만, 바실리의자에서는 좌우의 옆으로 고정되어

8) Breuer, Marcel, Form Funktion, in: Junge Menschen, 1924, No.8 (Kraus Reprint, München, 1981), p.191.

9) 당시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압력 때문에 바우하우스는 1925년 바이마르에서 뎃사우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목공공방이 가구공방으로 改名되었다.

10) 독일인 한스 크놀(Hans Knoll)이 1938년 뉴욕에 설립한 사무용가구회사 Knoll International(당시 Hans G. Knoll Furniture Company)이 1968년에 제비나의 회사를 인수한 이래 바실리의자는 현재까지 Knoll International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http://www.knollint.com/German/frameset_products_studio.htm 참고. 현대 가구산업의 선구적인 이 회사에 관해서는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pp.103-104; Fiell, Charlotte & Peter, Design des 20. Jahrhunderts, pp.386-389; http://www.knollint.com/German/German_home.htm 참고.

11) Bergmann, Eckart/Kleinefenn, Andreas (Herausgeber), Marcel Breuers Freischwinger B32/64, p.21.

12) Fiell, Charlotte & Peter, Die modernen Klassiker, p.10.

13) 당시 자전거 산업은 자전거의 몸체에 강관을 사용함으로써 1920년대의 전위예술가들을 매혹시켰다. 예를 들어 르 코르뷔제는 1925년 그에 의해 설계된 파빌리온(Pavillon)인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에 설치한 계단의 디자인을 자전거의 구조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전거의 몸체와 같은 계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Möller, Werner / Macel, Otakar, Ein Stuhl macht Geschichte, p.14.

14) Fiell, Charlotte & Peter, Die modernen Klassiker, p.10.

15)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Herausgeber), Marcel Breuer, p.15.

16)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Herausgeber), Marcel Breuer, p.14.

있기 때문에 앉을 때에 더 이상 방해를 주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기능성의 철저한 고려는 불필요한 장식을 거부하는 조형적 단순성과 관련된다. 여기에 강관의 선의 형태, 전체적으로 투명한 의자의 구조, 크롬도금한 강관의 반사적인 특성에 나타난 예술적인 미와 공간에 주는 인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바실리의자는 기능성과 예술성을 잘 조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택된 재료와 기술적인 제작과정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바실리의자는 예술성과 기능성에 입각한 반수공업적인 기술작품으로서 바우하우스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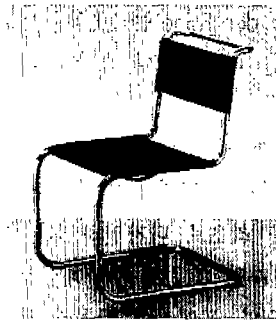
브로이어는 바실리의자를 통해 나무를 주재료로 한 전통적인 의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초기 모더니즘의 상징인 강관가구의 시대를 열었다. 바실리의자 이후 브로이어와 다른 디자이너들은 여러 종류의 강관가구들을 디자인하였다¹⁷⁾. 종래에는 금속으로 만든 가구가 단지 상가나 회사 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바실리의자의 등장 이후부터 강관가구가 거의 모든 종류의 주거공간에 사용되어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 가) 1927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Stuttgart)시의 바이센호프(Weißenhof)에서 열린 “주택(Die Wohnung)”이란 이름의 전시회 등에서 강관가구를 실내건축에 사용함
- 나) 새로운 생활형태를 요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
- 다) 전통적인 가구회사인 토네트(Thonet)가¹⁸⁾ 가구시장의 장래를 강관가구에 있다고 판단하여 브로이어가 설립했던 표준가구라는 회사를 1929년에 인수하고 강관가구의 생산에 박차를 가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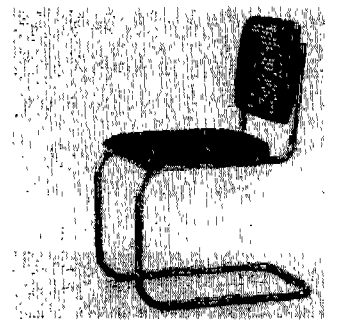
(3) 캔틸레버의자

뒷다리가 없는 캔틸레버의자는 바실리의자로 시작된 강관의자를 조형적으로 보다 단순화한 필연적 발전의 산물이다. 1927/28년에 브로이어는 B33이라는 크롬도금한 강관의 캔틸레버의자를 디자인했다. 그 후 일련의 캔틸레버의자를 디자인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1928년 베를린 시절에 디자인한 체스카의자(Cesca Chair)다¹⁹⁾.

17) 1920년대의 강관의자에 대하여는 정신원/신홍경, 1920년대 유럽의 집합 주택에 적용된 강관의자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 17호 (1998년 12월), pp.140-142 참고.
 18) 이 회사의 연혁 및 활동에 관하여는 Eisinger, Merve, Stühle des 20. Jahrhunderts, pp. 8-9; Fiell, Charlotte & Peter, Design des 20. Jahrhunderts, pp. 688-690; <http://www.thonet.de/english/index.html> 참고.
 19) 체스카의자는 원래 B32라는 이름을 가졌다(팔걸이가 추가된 것은 B64). 바실리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 제비나에 의해 이 의자가 재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제비나와 브로이어의 합의하에 체스카의자라는 오늘날 통용되는 이름이 생겨났다. 브로이어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프란체스카(Francesca)였다. 그러나 보통 체스카(Cesca)라고 줄여서 부른다는 것을 브로이어에게서 들은 제비나의 제안에 의해 체스카의자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Bergmann, Eckart / Kleinfe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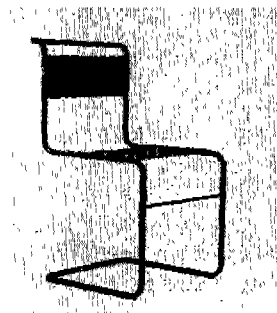
<사진 10> B33. 1927/1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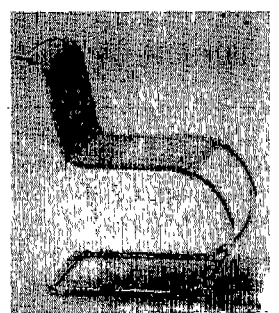
<사진 11> 체스카의자. 1928

체스카의자는 한 개의 강관을 여덟 번 구부려 만들었다. 앉는 부분과 등받이에는 엮은 등나무를 사용했으며, 그 테두리는 주로 검은색으로 착색한 곡목(Bugholz)으로 만들어졌다. 세련된 구조상의 형태와 강관, 곡목, 엮은 등나무의 독창적이고 미적인 결합은 체스카의자가 다양한 공간에서 무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당시의 사진들이 증명하듯이, 이 의자는 처음부터 침실, 거실, 부엌, 서재, 사무실, 학교 등에 골고루 사용되었다. 체스카의자는 강관으로 만들어진 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가구로 인정받고 있다²⁰⁾.

물론 캔틸레버의자를 처음 디자인한 것은 브로이어가 아니다. 네덜란드의 건축가인 마르트 슈탐(Mart Stam)이 1926년에 S33이라는 용접한 가스관으로 만든 최초의 캔틸레버의자를 디자인했다. 1927년에 슈투트가르트의 바이센호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소개된 모델은 독일의 아르놀트(L. & C. Arnold)사에서鑄鋼管으로 만들어졌다²¹⁾. 슈탐의 캔틸레버의자 스케치를 1926년에 바이센호프의 전시회 준비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 독일인



<사진 12> S33. 1926



<사진 13> MR10. 1927

Andreas (Herausgeber), Marcel Breuers Freischwinger B32/64, p.21 참고. 체스카의자는 1968년 이래 Knoll International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http://www.knollint.com/German/frameset_productts_studio.htm 참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체스카의자의 판매권은 1929년 이래 토네트사가 가지고 있다. 이 회사에서의 표기는 S32 및 S64; <http://www.thonet.de/english/index.html> 참고.
 20) Bergmann, Eckart/Kleinfenn, Andreas (Herausgeber), Marcel Breuers Freischwinger B32/64, p.8.
 21) 현재는 토네트사에서 재생산됨; <http://www.thonet.de/english/index.html>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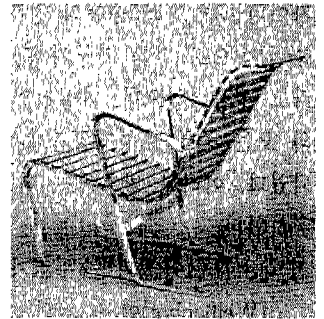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헤(Mies van der Rohe)는 1927년 니켈 도금한 강관의 캔틸레버의자 MR10을 디자인하여 슈탐과 마찬가지로 위의 전시회에서 선보였다²²⁾.

슈탐, 미스 반 데어 로헤, 브로이어는 20세기 가구디자인의 최대의 성과 중의 하나인 캔틸레버의자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슈탐은 캔틸레버의자를 최초로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그의 S33은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 때문에 무산계급층의 주택에 속한다는 비판²³⁾을 받고 있으며, 프레임의 굴곡된 부분에 (처음에는 외부에, 후에는 내부에) 금속봉을 사용하여 강화한 탓에 의자가 탄력적이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²⁴⁾. 미스 반 데어 로헤는 강관이라는 재료와 반원형의 형태를 통해 최초로 탄력적인 캔틸레버의자를 디자인했다. 그의 MR10은 슈탐의 S33에 비해 기술적, 미적으로 훨씬 우월하며²⁵⁾, 넓은 공간을 가진 심미주의자에게 적합한 의자라는 평²⁶⁾을 받는다. 그러나 MR10은 실제로는 독일의 여성디자이너인 릴리 라이히(Lilly Reich)와 공동으로 디자인되었으며²⁷⁾, 반원형의 형태 때문에 안정적으로 앉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²⁸⁾을 받는다. 브로이어는 강관의자의 발명가이고, 그가 뉘른베르크의 바우하우스 재직 시에 만든 강관의자들은 슈탐과 미스 반 데어 로헤가 디자인한 캔틸레버의자의 기초가 되었다. 브로이어의 체스카의자는 기술, 기능성과 미를 잘 통합시켰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²⁹⁾, 오늘날까지 가장 인기 있는 캔틸레버의자로 남아 있다³⁰⁾.

네트社를 위해 여러 종류의 강관가구(의자, 책상, 탁자 등)를 디자인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교의 편의상 이미 앞에서 언급한 체스카의자다. 브로이어는 1929년부터 3년 간에 걸쳐 계속된 자신의 캔틸레버의자의 사용권에 대한 소송에서 토네트社가 패소하자 강관가구와 캔틸레버의자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에 브로이어는 주로 스위스와 부다페스트를 오가며 활동하였다. 부다페스트에서는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스위스에서는 아직 현존하고 있는 엠브루(Embru)社를 위하여 알루미늄이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의자를 디자인하였다. 알루미늄이 사용된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의 저렴성이었고, 알루미늄가구는 가볍고 녹슬지 않는 장점에 정원과 발코니용으로 환영을 받았다.



<사진 14> Model No. 301. 1932/34



<사진 15> Model No. 311 1932/34

2.3. 베를린과 스위스 시절(1928-1934)

가구디자인과 실내건축에서의 성공,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에서의 퇴임을 계기로 브로이어는 1928년 4월에 바우하우스를 떠났다. 그 후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가로 활동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1928-1931). 이와 동시에 1928년 7월 자신이 설립한 가구회사에서 손을 뗀 후, 토

종래에는 강관을 사용하여 탄력적인 의자를 만들었지만, 브로이어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탄력적인 의자를 만들었다. 알루미늄이 강관처럼 강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전형적인 캔틸레버의자와는 달리 뒷다리가 필요했지만, 곡선의 형태를 가진 뒷다리를 사용함으로써 의자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1932년 독일에서 특허를 얻었다. 브로이어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의자들은 1933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국제 알루미늄가구 경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4. 영국에서의 망명 시절(1935-1937)

이미 1934년에 영국으로 건너 간 그로피우스를 따라 브로이어는 1935년 8월 나치정권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런던에서 영국인 건축가인 요크(Yorke)와 공동으로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동시에 그로피우스가 상담역으로 있는 합판(plywood) 및 적층재(laminated wood)가구 전문의 아이소콘(Isokon)社에서 디자인 부서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합판(있는 부분과 등받이용)과 적층재(프레임용)를 사용한 가구를 디자인하였다³¹⁾. 이미 1930년대 초부터 핀란드의 건축가인 알토

22) 팔걸이가 있는 것은 MR20인데, 양자 모두 현재 Knoll International에서 재생산된다; http://www.knollint.com/German/frameset_products_studio.htm 참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판매권은 체스카의자의 경우와 같이 토네트社가 가지고 있다. 이 회사에서의 표기는 S533R 및 S533RF; <http://www.thonet.de/english/index.html> 참고.

23)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Herausgeber), Marcel Breuer, p.18.

24) Sembach, Klaus-Jürgen/Leuthäuser, Gabriele/Gössel, Peter, Möbel design des 20. Jahrhunderts, p.102.

25) Eisinger, Merve, Stühle des 20. Jahrhunderts, p.42.

26)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Herausgeber), Marcel Breuer, p.18.

27) Albus, Volker / Kras, Reyer / Woodham, Jonathan M. (Herausgeber), Design! Das 20. Jahrhundert, p.45; Jahr, Angelika (Herausgeber), Möbel, die Geschichte machen,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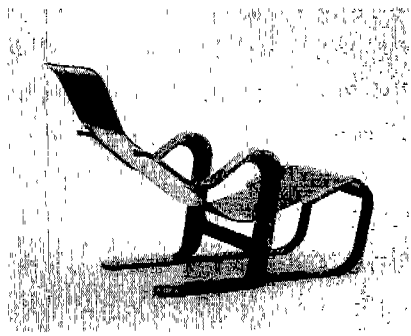
28) Fiell, Charlotte & Peter, 1000 Chairs, p.171.

29)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Herausgeber), Marcel Breuer, p. 18; Eisinger, Merve, Stühle des 20. Jahrhunderts, pp.44-45.

30) Sembach, Klaus-Jürgen/Leuthäuser, Gabriele/Gössel, Peter, Möbel design des 20. Jahrhunderts, p.103.

31) 이 가구들은 모두 현재까지 아이소콘社에서 생산되고 있다; <http://www.isokonplus.com/interface.htm> 참고.

(Aalto)가 합판과 적층재를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가구를 디자인하였지만, 브로이어는 강관으로 바실리의자를 디자인했던 1925년에 가구산업의 미래의 재료는 합판이라고 예측하였다³²⁾.



<사진 16> 팔걸이의자. 1936

그로피우스의 제안에 따라 브로이어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팔걸이의자(사진 15)를 적층재로 디자인하였는데(사진 16), 그 형태는 알토의 영향을 받아 유기적인 것으로 되었다. 브로이어의 새로운 팔걸이의자는 완벽한 미를 가지고 있으며, 1940년경부터 미국에서 절정기를 가진 유기적 가구디자인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가구들 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³³⁾.

2.5. 미국 시절(1937-1981)

1937년에 미국의 하버드대학 건축학과 교수가 된 그로피우스의 권유에 의해 브로이어는 같은 해에 자신이 1981년 뉴욕에서 他界할 때까지 살게 되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로피우스의 조교가 되었다. 다음해에는 그 자신도 교수로 승진하게 되었으며, 1946년에는 하버드대학을 떠났다. 브로이어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그로피우스와 함께 1941년까지 케임브리지에서 공동의 건축 사무실을 운영했다. 1941년 그로피우스와 크게 다툰 후에, 처음에는 케임브리지에서, 1946년부터 1976년까지는 뉴욕에서 독자적으로 건축설계 사무실을 운영했다.

브로이어는 미국에서도 주로 적층재를 사용하여 가구디자인을 했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건축설계이어서 이 분야에서와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가구생산업자인 제비나가 1962년에 브로이어에게서 그의 대표적인 가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사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이 가구들은 제비나에 의해, 1968년부터는 그의 회사를 인수한 Knoll International社에 의해 오늘날 통용되는 이름하에(예를 들어 바실리의자, 체스카의자)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다³⁴⁾.

32) Bergmann, Eckart/Kleinfenn, Andreas (Herausgeber), Marcel Breuers Freischwinger B32/64, p.7.

33)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Herausgeber), Marcel Breuer, p.29.

34) 이 회사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브로이어의 가구목록은 http://www.knollint.com/German/frameset_products_studio.htm 참고.

3.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 특성

3.1. 그로피우스의 영향

리트벨트의 안락의자와 적청의자, 슈탐의 S33, 알토의 유기적 디자인은 브로이어의 황목의자, 체스카의자로 대표되는 캔틸레버의자, 아이소컨社를 위해 디자인한 가구에 각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우하우스를 설립하고 초대 교장을 지낸 그로피우스다. 그는 브로이어가 목공공방의 학생으로 있을 때 직접 목공공방의 책임자로서 형태교육을 하였고, 브로이어를 바우하우스의 가구공방의 책임자로 초빙하였고, 브로이어가 영국의 아이소컨社를 위해 가구디자인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기능성의 고려하에 기계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요구한 그의 사상은 브로이어가 바우하우스와 초기 모더니즘의 상징인 강관가구의 시대를 여는 배경이 되었다.

3.2. 재료 사용의 단계적 구분

브로이어가 가구디자인에 사용한 재료는 단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바우하우스의 학생 시절에는 전통적인 재료인 나무를 사용하였고, 바우하우스의 가구공방에서 책임자로 활동하면서부터 베를린 시절까지는 자신이 설립한 표준가구社 혹은 토네트社를 위해 강관을 사용하였다. 스위스 시절에는 엠부르社를 위해 알루미늄가구를 디자인하였고, 영국에서 아이소컨社를 위해 활동할 때부터는 합판과 적층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는 상이한 요소들이 작용하였다. 강관을 가구의 재료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은 캔틸레버 의자에 대한 소송의 결과 때문이고,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은 저렴한 가구의 디자인을 요구한 스위스의 엠부르사 때문이다. 합판과 적층재를 사용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영국으로 망명하여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구를 제작하고 있던 아이소컨사에서 디자인 부서 책임자로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3.3. 새로운 재료의 사용

재료 사용의 단계적 구분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브로이어에 의해서 처음으로 강판과 알루미늄이 가구디자인에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브로이어가 최초의 강판가구인 바실리의자를 디자인한 것은 강판가구가 초기 모더니즘의 상징이라는 점과 연관되어 가구디자인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재료의 사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새로운 제작기술을 요한다는 의미를 동반하며, 새로운 형태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것은 가구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재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준다.

3.4. 기능성과 미의 조화

바우하우스 자체와 마찬가지로, 브로이어의 학생 시절의 가구디자인은 영국의 예술공예운동, 독일 중심의 표현주의, 네덜란드의 데 스틸, 러시아의 구성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로이어는 목공공방을 졸업하던 해인 192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특정한 디자인 양식과 거리를 두었다. 예술공예운동과 표현주의는 이미 1922년 “예술과 기술”이라는 바우하우스의 새로운 슬로건의 등장으로 의미가 쇠퇴해졌지만, 브로이어는 데 스틸과 구성주의의 일방적인 적용도 거부하였다. 또한 “의자는 단지 합목적성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져도 안 된다”는 견해를 같은 논문에서 밝힘으로써 루이스 설리반(Louis Sullivan)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표어로 대표되는 20세기 기능주의의 일방적인 적용도 거부하였다. 황목의자에서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듯이, 브로이어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황목의자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기능성이 고려된 바실리의자는 예술적인 미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것은 특히 하나의 선의 형태를 가진 강관의 골격구조와 다리의 끝 부분의 굴곡된 형태에서 나타난다.

기능성의 고려는 불필요한 장식을 거부하는 구조의 단순성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바실리의자로 시작된 강관의자는 필연적으로 캔틸레버의자를 탄생시켰다. 브로이어의 체스카의자와 슈탐과 미스 반 데어 로헤의 캔틸레버의자의 비교가 나타내 주듯이, 브로이어는 그의 가구디자인에서 기능성과 미를 잘 조화시켰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은 체스카의자가 현재까지 디자인된 강관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가장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브로이어의 대표적 가구들이 “모더니즘의 고전(modern classic)”으로서 현재에도 생산,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브로이어가 실현한 기능성과 미의 조화가 시대를 초월한 것임을 입증해 준다.

3.5. 탄력적인 의자의 선호

브로이어는 가구디자인에서 탄력적인 의자를 선호하였다. 황목의자에서 바실리의자까지는 앉는 부분에 사용된 재료에 의해, B33의 캔틸레버의자 이후에는 프레임에 사용된 재료의 특성과 다리의 구조에 의해 의자가 탄력성을 가졌다. 강관의 경우와는 달리 알루미늄과 적층재를 사용하여 브로이어가 캔틸레버의자를 디자인하지 않은 것은 재료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지만(특히 알루미늄의 경우³⁵⁾), 자신의 캔틸레버의자의 사용권에 대한 소송 이후 캔틸레버의자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결과로 생각된다.

35)알토는 1931/32년에 적층재를 사용한 최초의 캔틸레버의자(Model No. 31)를 디자인하였다.

4. 결론

브로이어는 독일의 바이마르에 있던 바우하우스의 목공공방에서 가구디자인을 교육받았다. 학생 시절의 초기에 예술공예운동과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예술과 수공예”라는 바우하우스의 슬로건하에 가구를 디자인, 제작하였다. 데 스틸과 구성주의의 영향아래 바우하우스가 기계적 생산을 위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기 시작한 1922년에 브로이어는 학생시절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리트벨트의 영향을 받은 황목의자를 디자인하였다. 목공공방을 졸업하던 해인 192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에게 영향을 미친 특정한 디자인 양식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여 조형적 자유를 얻었다. 1925년부터 3년 간 브로이어는 뎃사우로 이전한 바우하우스의 가구공방에서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25년에 최초의 강관가구인 바실리의자를, 1927/28년에 자신의 첫 캔틸레버의자인 B33을, 1928년에 가장 성공적인 강관의자인 체스카의자를 각각 디자인하였다. 브로이어는 1932년 스위스의 엠브루사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강관 대신에 알루미늄을 가구디자인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1933년에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린 국제 알루미늄가구 경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35년 영국으로 망명한 후부터는 합판과 적층재를 사용하였고, 알토의 영향을 받아 유기적 디자인을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과 가구디자인 경력, 그리고 대표적인 가구의 분석을 통해 밝힌 브로이어의 가구디자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가) 그로피우스의 영향: 기능성의 고려하에 기계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을 요구한 그의 사상은 브로이어의 강관가구를 탄생시킨 사상적 배경
- 나) 재료 사용의 단계적 구분: 독일 시절에는 강관, 스위스 시절에는 알루미늄, 영국과 미국 시절에는 합판과 적층재
- 다) 새로운 재료의 사용: 강관과 알루미늄 특히 강관가구의 시대를 열음으로서 초기 모더니즘의 형성과 발전에 이바지
- 라) 조형적 특성: 기능성과 미의 조화, 탄력적 의자의 선호

참고문헌

1. 신흥경, 현대 의자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13호 (1997년 12월).
2.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2001.
3. 정신원·신흥경, 1920년대 유럽의 집합주택에 적용된 강관의자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제17호 (1998년 12월).
4. Albus, Volker / Kras, Reyer / Woodham, Jonathan M.(Herausgeber), Design! Das 20. Jahrhundert, Prestel Verlag, 2000.
5.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Herausgeber), Marcel Breuer, Benedikt Taschen, 1992.
6. Bauhaus-Archiv Museum für Gestaltung (Herausgeber), Bauhaus, Benedikt Taschen, 1993.
7. Bergmann, Eckart / Kleinfenn, Andreas (Herausgeber), Marcel Breuers Freischwinger B32/64, Fricke Druck GmbH, 1997.
8. Breuer, Marcel, Die Möbelabteilung des staatlichen Bauhauses zu

Weimar, in: Fachblatt für Holzarbeit, 1925.

9. Breuer, Marcel, Form Funktion, in: Junge Menschen, 1924, No. 8 (Kraus Reprint, München, 1981).
10. Eisinger, Merve, Stühle des 20. Jahrhunderts, Klinkhardt & Biermann, 1994.
11. Emmerich, Angelika, Marcel Breuer - Tischlerlehrling und Geselle des Weimarer Bauhauses 1920-1925, Wissenschaftliche Zeitschrift der Hochschule für Architektur und Bauwesen Weimar, 1989.
12. Fiell, Charlotte & Peter, 1000 Chairs, Benedikt Taschen, 2000.
13. Fiell, Charlotte & Peter, Die modernen Klassiker, Edition Stemmler, 1991.
14. Fiell, Charlotte & Peter, Design des 20. Jahrhunderts, Benedikt Taschen, 2000.
15. Jahr, Angelika (Herausgeber), Möbel, die Geschichte machen, Schöner Wohnen, 1993.
16. Jahr, Angelika (Herausgeber), Top Design des 20. Jahrhunderts, Naumann & Göbel Verlag, 1999.
17. Möller, Werner / Macel, Otakar, Ein Stuhl macht Geschichte, Prestel Verlag, 1992.
18. Pfeleiderer, Wolfgang, Einleitung, in: Die Form ohne Ornament, Werkbund Ausstellung 1924, Berlin/Leipzig, 1924.
19. Sembach, Klaus-Jürgen / Leuthäuser, Gabriele / Gössel, Peter, Möbeldesign des 20. Jahrhunderts, Taschen Verlag, 1993.

<접수 : 2001. 10. 31>